

1930년대 복식의 기호학적 분석 - 신문소설의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

조진숙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조교수

A Semiotic Analysis on 1930's Costume - On Woman Character in the Novels -

Jean-Suk Cho

Dept. of Fashion Design, Assistant Professor of Kyung Weon University

目次

Abstract	Ⅲ. 작품 개요
I. 서론	1. 시대적 배경
1. 연구 목적	2. 작품소개
2. 연구 대상	Ⅳ. 분석 결과
3. 연구 방법	1. 삼대
Ⅱ. 기본 개념	2. 흙
1. 기호학이란?	Ⅴ. 결론
2. 기본 모형	참고문헌

Abstract

The study, "a semiotic analysis on 1930's costume", is based on semiotic theory which analyze the meaning of signs. In the novels, "흙" and "삼대", character's costume were used as a visual language that implies messages of character's status, class, and the view of value.

Analyzing the meaning of clothing signs, clothing could deliver the people's informations to others and could be first things when people accept new value.

The object of the studies are the novels, Hulk(흙) and Samdae(삼대) which are written by Lee, Kwang-Soo and Yeom, Sang-Seob. In the novels, the social structure is classed as modern and traditional after we accept the western cultures and institutions.

The traditional clothing, Han Bok, were dressed by the conservative woman.

However, we could find the modernized woman dress with the western dress and the modified traditional style.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research, we could find that clothing could be a sign which indicates value and also clothing is one of the first thing to change when people acquired new value.

I. 서론

1. 연구목적

복식 및 복식행동은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도덕적·미적 기준, 가치관, 기술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시대와 신분, 지위, 가치관에 따라 특성을 지닌 복식이 존재한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이 상호 작용시, 착용하는 복식으로 상대방의 신분, 지위, 가치관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복식은 착용자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비언어적 전달체로서 시각적으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복식을 착용하고 표현하는 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결국 기호를 선택하고 의미를 표현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활동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식을 인간에게 가장 밀접해 있는 문화적 산물로서 하나의 기호 즉 상징이라고 규정 짓고, 복식에 기호학적 접근을 시도하여 소설 속에서 작가에 의해 외형적으로 표현된 복식현상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체계를 이해하여 여성의 가치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언어는 의미와 발음이 일련의 약속과 규칙으로 맺어진 자의적인 것이고,¹⁾ 복식은 의미와 옷이 착용습관에 의해 길들여지고 사회에 의해 배우고 하는 과정을 통해 의복착용이 이루어지고 의미가 형성되는 것으로서, 복식활동에 동원되는 요소는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각 영상이라는 감각적 측면과 개념이라는 비감각적 측면이다.

복 식	→	시각영상 (복식형태)	+	개 념
기 호	→	기 표	+	기 의

<그림 1> 기호의 이중 분할

언어에서는 감각으로 지각되는 소리의 면을 기표(signifiant)라 부르고 감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뜻의 면을 기의(signifie)라고 하는데, 복식에서는 감각으로 지각되어 보이는 면, 복식의 형태를 기표라 하겠고 감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면을 기의라 한다.²⁾

발작(Balzac)은 「이브의 딸들(Daughter of Eve, 1839)」이라는 소설에서 “여성들의 의상은 그 개인의 생각이나 말을 상징하는 표현이다.”고 하였다.³⁾

상징은 의미형성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으로서 일반관념의 연합에 의해 그것을 지시하는 대상을 표의하는 기호라 볼 수 있으므로⁴⁾ 복식은 하나의 기호언어이며 무언의 통화체계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처럼 복식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기호들 중의 하나라고 볼 때, 복식의 착용

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결국 기호를 선택하고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식의 착용은 기호의 선택이며, 우리는 복식표현의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상대편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

2. 연구 대상

연구대상으로는 이광수와 염상섭의 소설인 “흙”과 “삼대”를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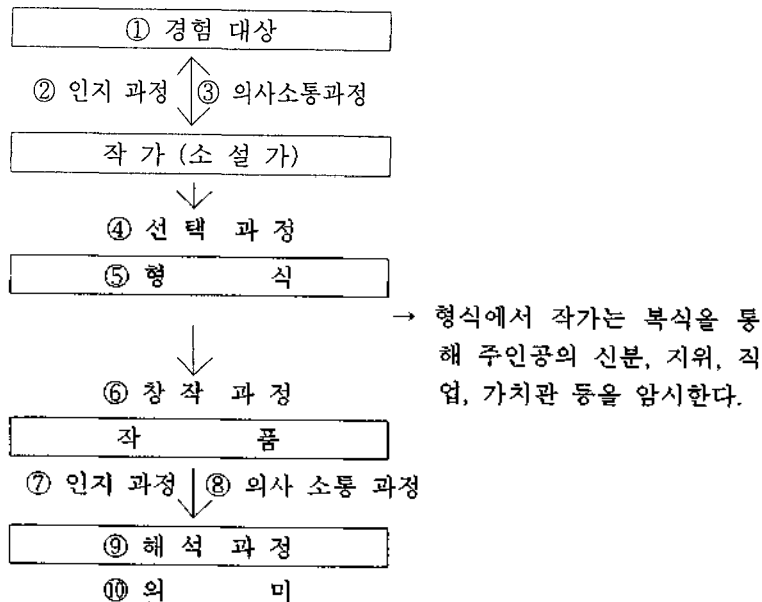
이광수와 염상섭은 우리나라 근대소설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가이며, 그들의 작품인 “흙”과 “삼대”는 1930년대에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각각 실린 장편으로서 그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소설 속에 나타난 여성의 복식표사는 단순하며 미비하지만 당시대 복식의 과도기적 특징이 잘 나타나 있으므로 여성의 가치관을 잘 살펴볼 수 있다.

〈그림 2〉는 복식이 작가에 의해 인지되어 소설 속의 인물을 통해 그들의 신분, 지위, 직업, 가치관에 따라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 과정을, 신현숙의 <시의 창작 과정>⁵⁾에서 사용된 표를 인용하여 소설 창작과정에 적용한 것이다.

작가는 직·간접적으로 많은 경험을 한다. (과정 ①②③)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언어형식(⑤)을 통해 작품을 창작(⑥)하는데 이때 많은 경험 속에는 복식에 대해 인지한 경험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주인공의 신분, 지위, 직업, 가치관 등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간접적으로 사용된다.

독자는 이 작품을 읽고 언어기호로 표현된 복식기호를 통해서 인지과정(②)과 의사소통과정(③)을 통해서 해석하고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림 2> 작품의 창작 과정

그러나 독자에 따라서 과정 ⑦과 과정 ⑧도 다르므로 자연스럽게 과정 ⑨도 달라지고 그 의미의 과정 ⑨의 폭도 매우 달라진다. 그러나 작가와 독자가 동일한 문화와 사상을 공유한 경우 작가와 독자의 공유량은 최대이며 성공적인 의사전달이라 볼 때 소설 등의 문학작품은 복식기호를 분석하는데 좋은 텍스트라 볼 수 있다.

3 연구 방법

연구방법은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는데, 작품 내용에서 먼저 복식을 포함하는 외모 및 복식행동에 관한 묘사들을 발췌하고 정리하였으며 그와 같은 복식 표현 중 여주인공과 관련된 부분을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의복 기호가 여주인공의 가치관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은 소쉬르와 엘름슬레이브(Hjelmsiv)부터 정식화 되기 시작한 서구의 구조주의 기호학과, 다른 하나인 미국의 퍼어스(Peirce)계통의 기호학 중에서, 일찍부터 의상을 기호학적 사상의 하나로 예견한 소쉬르와 그의 기호학을 이어받은 롤랑바르트의 구조주의기호학의 기호체계를 위주로 하였다.

II. 기본 개념

1. 기호학이란?

기호는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지만 기호학이란 말 자체는 일반 사람들의 귀에 낯설게 들린다. 그러나, 거리의 신호등에서 밤하늘의 별자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호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삶을 누리고 있다. 이처럼 기호는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으며 모든 것이 그 근본에 기호학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⁶⁾

기호학의 요소들은 가감승제나 미적분의 기호, 동호, 수학 기호나 물리학, 화학에서 법칙이나 구조식을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기호나 부호로 쓰이는 것처럼 문학, 예술, 과학, 공학, 군사학, 정치학, 의학, 동물학, 사회학, 광고학, 천문학, 심리학, 인류학, 법학, 종교학, 철학 등 모든 학문에서 발견되며, 한 여성이 어떤 모임에 참석할 때, 그가 하는 화장과 의복의 선택, 그리고 타고 가는 자동차의 종류 등은 그의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는 기호인 것처럼 의복, 음식, 자동차, 실내장식 등 일상생활에 널리 퍼져 있다.

인생을 체험적 시간과 공간이라고 정의할 때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이 상징체이고 그러한 상징체의 기본이 기호이다. 인간이 창조적 동물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이 기호들을 엮어 의미있는 상징체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춘 존재임을 가르킨다. 기호학은 상징체의 창조와 의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상징체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으며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⁷⁾

기호학이 하나의 독립과학이 되는 적극적 계기가 된 것은 존 로크가 학문 영역 분류에서 언급한 이래로,⁸⁾ 유럽에서 구조주의 언어의 창시자인 소쉬르에 의해 언어학적 기호론이 제창되었고, 미국에서는 퍼어스가 실용주의, 경험주의를 바탕으로 기호와 기호론의 개념을 규정하여 독창적으로 발전시켰다. 소쉬르의 견해에 기반을 둔 기호학은 엘름 슬레이브, 롤랑바르트,

움베르토 에코(Eco, umberto), 브레몽(Bremond), 코케(Coquet) 등의 로만어 학자들로 이어지면서 발달하였고 퍼어스의 견해에 따르는 기호론은 찰스 모리스(Moris)가 뒤를 이어 행동주의 기호론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두 분류를 타고 내려온 기호학은 현대기호학에서 도표, 표식 등의 기호현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달의 기호학과 영화, 의상, 식품 등 전달의도가 명시되지 않더라도 의미작용을 발휘하는 모든 사회 문화 현상을 기호로 간주하는 의미작용의 기호학으로 나뉜다.⁹⁾

이 학문의 공식적 탄생과 학문적 체계를 예언했던 두 학자인 소쉬르와 퍼어스가 기호학에 대해 정의한 것을 살펴보면 소쉬르는 “언어는 생각들을 표현하는 기호의 체계이며 따라서 씌어진 글, 맹인용 점자, 상징적 측계, 예법의 약호, 군대의 신호에 비교될 수 있다. 언어는 이 체계 중에서 가장 풍요롭다. 우리는 사회 안에서 기호의 삶을 연구하는 하나의 학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기호학 (그리스어 Semion [기호]에 유래한다.)이라고 부르려 한다. 기호학은 기호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법칙이 기호를 지배하는가를 말해 줄 것이다.”¹⁰⁾

그는 <일반 언어학 강의>에서 기호학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첫째, 자연언어를 다시 부호화한 문자나 농아의 알파벳 범주로서 점자, 모리스 부호, 암호, 난수표 등을 볼 수 있으며

둘째, 지시사항을 전달하는데 목적을 둔 군사 및 해양 신호로서 도로, 하천, 철도, 항공 교통의 신호 등이 있다.

셋째, 사회 속에서 개인들이 상호간을 규정하는 상징적 의식, 예절의 풍습, 복식 등을 들 수 있다.¹¹⁾

실용주의 철학자인 퍼어스는 <나는 내가 아는 한, 가능한 세미오시스(Semiosis)의 본질적 성격과 근본적 다양성의 규칙인 내가 기호학이라고 하는 바의 것을 분명히 하고 시작하려는 노력에서 선구자이다>라고 하였다.¹²⁾

에코는 기호학을 기호에 의해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다루는 학문이라 간주하여서 “기호학이란 모든 문화의 과정을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 보는 관점에서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¹³⁾

좀 더 구체적으로 <사회적 작용력(Social force)으로서의 기호>를 연구하는 것이 기호학의 주제라고 했으며 귀랄루드(Guiralud)는 기호학을 <기호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라 간단히 정의했다.¹⁴⁾

기호학은 기호의 과학으로서 언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의 의미구조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는 인간의 생활과 관계되는 모든 사물, 표현을 모두 기호로서 파악하여 해명하는 폭 넓은 학문인 것이다. 그러면 기호에 공통되는 일반적 정의는 어떠한 것인가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요소를 나타내는 다른 요소로서 그 대응물이 되는 것을 기호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직접 감지할 수 없는 사실을 시각적, 촉각적, 청각적 또는 음성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즉, 기호는 어떤 요소의 대응물이 되어 그것을 표상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가졌다는 것은 분명하다. 표상이면 무엇이든 기호가 되는 것일까? 대응물로서의 표현이 기호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나 집단에서 공통되는 규약으로서 대응물이 되는 표현이라고 인정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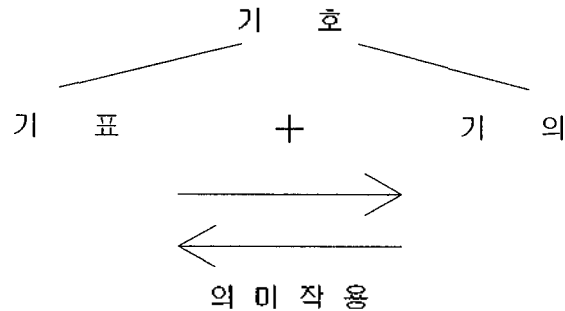
이와 같은 집단의 규약(약속)을 바탕으로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의 대응물로서 표상이 될 때 그 요소는 기호가 된다.

2. 기본 모형

기호에 대한 정의의 범위에서 소쉬르는 언어 기호를 하나의 개념(concept)과 하나의 청각 영상(image acoustique)을 가지고 있는 심리적 실체로서 개념과 청각 영상의 결합을 기호(sign)라고 부르며 말의 외면적 형식 즉 소리편을 기표(signifiant)라 하고, 그 내용 즉 뜻의 면을 기의(signifie)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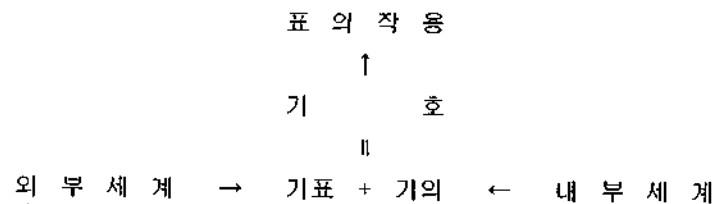
그러나 청각적인 성격을 지닌 언어는 오로지 시간선상에서 전개되며, 시각적인 기호 표현(signifiant visual)은 여러 차원에서 동시에 펼쳐지는 다원적인 것이라 하여 언어기호와 비언어 기호로 구분하였다.¹⁵⁾

기호의 모형에 대해 살펴보면, 소쉬르의 기본 모형은 <그림 3>과 같이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졌다.



<그림 3> 소쉬르의 기호 모형

하나의 기호를 만들기 위해 기표와 기의를 결합시키는 작용을 의미작용이라 부른다. 즉 기호는 기호표현과 기호내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전체이며, 기호표현과 기호내용은 동시적이면서도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표의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그림 4). 여기서 기표는 <기호의 이미지>를 말하며 기의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신적, 추상적 개념이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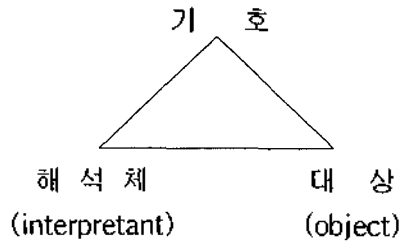


<그림 4> 기호의 의미 작용

피스카(Fiske)와 하틀레이(Hartley)는 기호학이 두 가지 중심명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기호와 그것의 의미의 관계를 밝히는, 기호에 의미가 부여되는 작용을 의미 작용의 비화(signification)라고 하며 다른 하나는 기호가 코드로 결합되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라고 했

다.¹⁷⁾ 즉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기호학의 연구핵심이다. 소쉬르에 따르면 기호는 생각(idea)을 표현(express)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호는 함축적으로 의사소통이나 무엇을 표현하려고 의도적으로 겨냥하는 두 인간 존재 사이에 발생하는 의미소통적 고안물로 여겨진다.

미국 기호학의 창시자인 피어스의 기호 모형은 <그림 5>와 같은 모형이다. 여기서 해석체는 기호에 의해 일어나는 어떤 정신적 개념이다.



<그림 5> 피어스의 기호 모형

피어스는 “세미오시스로서 나는 세 개의 주체 즉 기호, 그 대상, 해석자의 상호작용이거나 상호작용을 발생케 하는 작용과 영향을 뜻한다.” 여기에서 해석자는 인간 주체가 아니고 세 개의 추상적 기호적 실체이며 구체적 소통적 행위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것들 사이의 변증법이다.¹⁸⁾

즉, 피어스는 기호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어떤 점에서나 어떤 자격으로서 대신하는 어떤 것이다>에서 <대신함>의 관계가 해석체에 의해 중개된다는 이유만으로 기호는 다른 무엇을 대신한다고 했다.

또한 피어스는 기호와 대상과의 관계를 3분 법칙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유상(icon), 지표(index), 상징(symbol)으로 칭하였는데 각각의 분류를 보면 유상은 증명사진, 상형문자처럼 대상과 유사한 기호를 말하며, 지표는 교통신호, 도로 표지판, 간판, 음절, 교복, 제복처럼 그 대상에 의해서 실제로 영향을 받고, 그 사실에 의하여 그 대상의 기호로서 가능한 것을 말한다.

상징은 어떤 법규에 의하여 보통은 일반관념에 의하여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을 표의하는 기호이며 그 경우 법칙이나 일반관념의 연합은 그 대상을 표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임의로 만들어진 기호를 뜻하며 기호와 대상체 사이에 어떤 연관이나 유사성 없이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다.¹⁹⁾

유럽학자들에 의하면, 상징과 대상과의 관계에서 상징은 정신세계에, 대상은 물질 세계에 속한 것으로 그 두 사항이 유추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유상은 유사성에, 지표는 인접성에, 상징은 유추작용에 각각 그 특징이 있다. 소쉬르의 기호학을 이어받은 블랑바르트는 기표/기의 개념을 소쉬르에게서 빌려왔으며 명시적/암시적 의미라는 개념은 엘름 슬레이브로부터 차용하여 완벽한 기호체계를 만들었다.

명시적/암시적 의미는 엘름 슬레이브가 제시한 개념으로, 소쉬르의 의미작용 관계를 바탕으로 엘름 슬레이브의 이론을 살펴보면 <그림 6>과 같다.²⁰⁾

여기에서 1차 기호를 엘름 슬레이브는 외시라는 개념으로 2차 기호는 공시라는 개념으로

제 1 차 기호	기 표	기 의	… 外示 (de'notation)
제 2 차 기호	기	표	기 의 … 共示 (connotation)

<그림 6> 엘름 슬레이브의 기호 모형

규정하고 외시/공시와의 관계를 외시언어 전체(기표/기의)가 하나의 표현이 되어 하나의 새로운 내용 곧 공시로 나타난다고 했다. 소쉬르의 언어 기호는 1차적 기호에 머물렀으나 엘름 슬레이브는 이것을 발전시켜 1차적 기호 내용을 넘어서 비유적, 상징적 의미까지 확대하였다. 롤랑바르트는 이러한 엘름 슬레이브의 외시/공시 개념을 받아들여 명시적/암시적 의미로 발전시켰다.

즉, 명시적 의미는 1차 기호 언어, 외시에 해당되며 암시적 의미는 2차 기호 언어, 공시에 해당된다. 따라서 <명시적 의미>는 모든 표현체제와 의사소통계의 일차적인 의미복합체(기표/기의의 관계)로, <암시적 의미>는 이데올로기적, 역사적, 사회학적 등의 이해의 이차적인 체계를 정의한다. 롤랑바르트의 기호 모형은 <그림 7>과 같다.

기의 암시적 의미	기표 암시적 의미	
	기표 명시적 의미	기의 명시적 의미

<그림 7> 롤랑바르트의 기호 모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호 모형은 <그림 7>의 롤랑바르트의 기호 모형을 사용하였다.

Ⅲ. 작품 개요

1. 시대적 배경

1910년 한일합방의 체결로 한국의 국권은 완전히 상실되었으나 3·1운동을 계기로 여성 운동은 문화, 사회, 신앙 활동 등으로 다양해졌으며 1930년대에 이르러서 여성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특히 문학, 예술, 교육 등 각 분야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여 다양하고 깊이 있는 활동을 전개하였다.²¹⁾

그리하여 이전까지의 여성교육의 기회를 점차 확대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교육을 받은 여성의 수는 적었던 것이 양적으로 팽창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여자도 남자와 동등한 교육을 받아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이로서 사회를 위해 독신으로 또는 기혼여성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주었다.²²⁾

이처럼 근대사상의 유입은 여성의 역할과 개성, 동등권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고 이러한 여성들의 권리 주장은 아직까지도 전통에 젖어 있었던 사회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으며 이렇듯 전통과 근대가 교차되어 혼잡했던 시기에 여성의 전통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근대적 가치관의 여성이 등장하여 여러 유형의 여성을 볼 수 있었다.

작품이 쓰여진 연도는 1930년대이나 작품의 내용상 1920년대부터 여성복식을 살펴보면, 1920년대에 들어서 일제는 한국민족의 민족의식을 말살시키고자 한복보다는 양장 착용을 적극 권하였다.

1920년대에는 구한말의 짧은 여자저고리가 일부 가정부인들 사이에서는 계속 입혀졌지만 고루한 특수층을 제외한 신식 유행을 따르는 이들은 점차 긴 저고리에 넓게 주름을 잡은 통치마를 즐겨 입었다. 여학생과 신여성들 사이에는 흰 선을 두른 통치마나 치마단까지 끈은 주름을 잡은 통치마에 허리선까지 오는 긴 저고리 차림이 유행하였다. 여학생 제복은 거의 흰 저고리에 검정 통치마로 통일되었다.²³⁾

1930년대는 일제의 경제정책은 대륙침략을 위해 우리의 자원을 약탈, 군수공업 확장에 이용하던 시기였다. 당시 조선총독부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도시사회 계층은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빈자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²⁴⁾

이러한 가운데 한국인들은 일제에 대한 투쟁과 함께 저항과 계몽운동을 계속하고 특히 신 여성에 대한 찬반양론과 사회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1920년대 말에는 “무학(無學)은 여자의 수치”라는 관념이 형성되고 여성교육의 양적인 팽창결과 신 여성층이 증가하였다.

1930년대의 여성복식을 살펴보면, 저고리 길이가 길고 화장은 짧으며 통치마에 주름을 넓게 잡아 양장의 플리츠 스커트처럼 치마단까지 끈게 내려왔으며 단발머리에 하이힐 신은 모습은 당시의 전형적인 신여성의 모습이였다.

일반부인들은 여전히 긴치마에 저고리를 입었으나 통치마 저고리의 개량한복은 물론, 긴치마 저고리의 전통적인 한복에도 서양식 머리모양이나 쇼울, 양산 등의 장신구들이 한복과 혼용되어 착용되었다. 1930년대는 양복감, 세루가 수입되어 통치마 저고리를 상하동색으로 입는 것이 유행하였으며 치마길이는 무릎 아래까지 짧은 길이가 되었다.²⁵⁾

2. 작품 소개

1) 삼 대 (염상섭, 1931)

염상섭은 사실주의 소설을 확립한 최초의 작가라고도 불리우며²⁶⁾ 특히 그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창작(소설)은 다른 예술보다도 시대상과 사회환경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²⁷⁾ 자연주의로부터 출발했으나 자연주의를 떠난지는 벌써 오래된 일이요, 사실주의에만은 시종일관하였다고 생각하는 소설관 내지 문학관을 지닌 작가임을 알 수 있다.²⁸⁾ 그는 1897년 8월 30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서 태어났다. (1897~1963)²⁹⁾

그는 우리의 근대문학과 삶을 같이한 불만, 부정시대의 작가로서 자유주의자였을 뿐 아니라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던 보수주의자이기도 했다. 그는 가공적인 인위성을 거부하고 사회나 인간을 그 생리나 생태대로 파악하려 했다.³⁰⁾

“삼대”는 1931년 조선일보에 실린 장편으로서 식민지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사실적으로 가감없이 묘사한 작품으로서 수직적으로는 조부 조의관, 아버지 조상훈, 아들 조덕기의 삼대를 중심으로, 수평적으로는 조의관을 중심으로 수원택, 조상훈을 중심으로 부인인 덕기모, 정부 홍경애, 김의경, 아들 덕기를 중심으로 덕기처 필순, 친구 김병화 등이 나타난다.

삼대를 통해서 염상섭은 도시 중산층의 삶의 모습과 지식인의 삶의 모습을 주로 문제삼고

있다.

2) 흙 (이광수, 1933)

이광수는 개화 식민지 시대로 표현되는 시기에 활동한 사람으로 근대문학 초창기의 문학가로서 영광과 치욕이 뒤섞인 작가이다. 그는 갑오경장이 일어나기 2년전 1892년에 태어났으며 19세때에 경술 한일합방을 28세에는 기미 독립운동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54세에 광복을 맞이하였다.

그의 계몽사상은 여러 모순과 미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상태의 당시 한국 사회의 관습과 한국인 사고방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 극히 짧은 기간이지만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대항한 바 있고 그의 문학이론과 새로운 소설 문장은 종래의 낡은 문학유산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그는 바른 역사의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당면 긴급한 현실의 정치적 상황을 외면하여 친일적 반민족적 활동에 열성을 다하였고, 이념이나 원칙이 없는 단편적 지식의 퇴적으로 인하여 사고의 합리화, 근대화를 저해한 점도 없지 않다.³¹⁾

“흙”은 1933년 동아일보에 실린 장편으로서 온 조선에 농촌운동이 일어나 모두 잘 살기를 기원하는 계몽사상과 민족주의 의식이 강조된 작품으로서, 주인공 허 승을 중심으로 그의 아내 정선, 친구이며 정선의 정부인 김갑진, 유순, 심순례, 현의사, 백선희, 이건영 등이 나타난다.

이들은 모두 지식인들로서 방황하고 갈등하나 모두 깨닫고 조선을 위해 일군이 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V. 분석 결과

1. “삼대”³²⁾

1) “삼대”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특징

(1) 덕기모

주인공 덕기의 어머니는 사실상 조씨 가문의 다음 가부장이 될 장자의 아내이나 신교육을 받은 남편 상훈으로 부터 버림받고 인격적으로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참고 견디어 내는 인내의 미덕을 지닌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여성이다.

“고년-첩년이야. 한 십 년 가두었다가 내놓았으면 좋겠지만 영감까지 들어가서 유치장 신세를 지고 있을 생각을 하니 아들만은 못해도 가엾은 생각이 든다.” (삼대, p. 389)

(2) 덕기처

주인공 덕기의 아내인 덕기처는 그의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여필종부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당시 사회의 전형적인 여성이다.

“지체보아서 한다고 할아버지가 야단치고 얻어 말간 아내는 또 그것도 처음에는 좋다가 일본 갈 때 실은중도 낫던 아내전만 시서모 앞에서 남편도 없는 동안에 고생하는 생각을 하면

가없기도 하였다. 사실 소학교 밖에 졸업 못하고 구식 가정에서 자라났기에 이 속에 배겨있지 요새의 신여성 같으면야 풍파가 나도 몇 번 낫을지 모를 거라는 생각을 하면 신지식이 없다고 싫어하던 것이 이제는 도리어 잘 되었다고 생각된다.”(삼대, p. 33)

(3) 홍경애

독립지사 아버지 때문에 가난하게 크면서 고생한 경애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던 상훈과 불륜의 관계를 갖는다. 타고난 미모와 자유의지가 강한 홍경애는 자신의 길을 찾으려고 방황하며 술집에 나가고 있다.

“빠커쓰에서 밤낮 덩군됐자 어엿하게 돈 한 켤 생기는 형편도 아니다. 어쨌든 이 사람을 다시 붙들고 집 귀 정도 내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삼대, p. 133)

그러나 병화와의 만남을 통해서 덕기와 필순의 식구들을 접촉하면서 현실적으로 충실할 수 있는 길을 열게 한다.

(4) 김의경

기울어져 가는 양반 집안의 딸로 태어나 어려서 한 때는 부유한 환경에서 살았고 신교육도 받은 신여성으로 허영심 때문에 낮에는 유치원 보모 노릇을 하며, 밤이 되면 술집에 나가 상훈의 첩노릇을 하고 그의 아이를 베고 마침내 본부인을 몰아내고는 부인이 살던 집으로 들어가 살림을 차리는 인물로 자신의 허영심 때문에 파멸해 나가는 인물이다.

“글쎄 그런 대갓대 딸이면 무얼 하나말요. 호화롭게 자란 버릇은 그대로 남아있고 유치원 같은데서 받는 것쯤이야 분값도 안 되고 하니까 원삼이네 맥 영감한테 월급을 받아야 살지 않겠소.”(삼대, p. 198)

(5) 필순

가난한 독립운동가의 딸로 부친과 병화의 교육을 받아 <가난>을 창피한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매사 소극적인 듯하면서도 적응력을 가진 여성이다. 구두공장에 다니면서 세 식구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기도 한 그녀는 덕기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선의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그녀 또한 덕기에게 호감을 가지나 이성적 자제력을 발휘한다.

“언제라도 덕기가 총각이거나 독신 생활을 하는 남자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나, 처자를 갖추고 호강스럽게 사는 양이 보기 전과, 본 뒤가 마음이 여간 달라진 것이 아니다. 남자의 다정한 딸과 고맙게 구는 태도에 빠질 듯하던 마음이 그안해, 그 자식, 그 호화로운 살림을 생각하곤, 자기 따위는 교제도 그만 두어 버려야 할 것이라고 낙망에 가까운 단념이 드는 것이다.”(삼대, p. 353)

또한 자제력과 근면성은 그녀를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타락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한다.

“필순이는 첫차 소리를 듣고 일어나면 막차가 들어간 뒤라야 자리에 눕지만은 고단은 하면서도 자리 속에서까지 물건값 외우고 파는 솜씨를 연구하기에 어느 때까지 잠이 아니왔다.”(삼대, p. 287)

“삼대”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삼대”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복식

<표 1> “삼대”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특징

등장인물	등장형태
덕기모	첩의 횡포를 견뎌.
덕기처	구식표육(소학교)만 받음.
홍경애	여고 출신, 조상훈의 첩, 카페마담, 자유분방.
필 순	가치관이 뚜렷함. 공부에 대한 욕망이 큼. 신교육 받음.
의 경	조상훈의 첩. 낮에는 유치원 선생. 밤에는 술집에 나감.

(1) 덕기모와 덕기처

이들의 복식에 관한 묘사는 거의 없었다. 그것은 그들의 복식이 평범했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보수적인 성향의 한복을 착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홍경애

“덕기는 경애의 양장한 모양을 보고 혼자 생각을 하였다. 속에다가는 무엇을 입었는지 어스름한 속에서 보이지 않으나 위에 들 쓴 짙은 동황색 외투와, 검승한 모자와, 서슬있는 에나멜 뽀족구두로 보아서 어느 무도장이나

무대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만한 차림이다.”(삼대, p. 54)

“경애는 후딱 양장을 차리고 나왔다. 푸근한 털외투에 검정 모자를 빼딱이 쓴 모양이라든지”(삼대, p. 34)

홍경애가 착용한 짙은 동황색 외투는 오렌지 빛에 가까운 색으로 매우 화려한 색상이며 검승한 모자는 거스름한 색상의 모자로 오렌지와 검정색의 화려한 배색이 연상되며 그에 맞추어 반짝거리는 에나멜 구두는 매우 화려한 모습을 연상시킨다.

1930년대에는 양장이 다양화 되어짐에 따라 의복의 색채도 전보다 다양해지고 여성들도 대담하게 자신이 선호하는 색상이나 무늬를 선택하게 되었으며³³⁾ 양장모자도 1930년대에 전성기를 맞이했던 것으로 미루어 홍경애의 옷차림은 당시의 유행을 쫓는 모습이었다.

(3) 김의경

“회색 망토를 한 팔에 걸고 의적이 버티고 들어오는 뒤에는 날씬한 트레머리 <여학생>이 끈색외투를 삼뿔이 입고 따라섰다. 언뜻 보기에는 대가집 모녀분 같고 좀 더 뜯어보면 노기나 대궐 퇴물인 귀인의 행차같다. 매당을 우선 초벌 간선한 경애의 눈길은 <여학생> - 다음시대에는 없어질 말이지마는 아직까지도 여학생이라는 이 말에는 좋고 나쁘고 간에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 에게로 옮겨갔다. ~이 애가 낮에는 유치원에서 천사같이 나비춤을 추고 밤에는 술사머리에 앉는구나!”(삼대, p. 212)

“의경이가 소리부터 휘뚝휘뚝하는 구두소리를 내며 들어 온다.”(삼대, p. 402)

김의경의 트레머리는 당시의 근대 여성을 상징하는 여학생의 전형적인 머리스타일이었으며 끈색 외투와 구두의 서양복은 당시에는 모던걸을 상징하는 복식이였다.

(4) 필 순

“한간통 앞에서는 흰 저고리에 검정치마를 입은 색씨 하나가 목도리를 오그려 두 불을 가리고 총총걸음으로 들어온다. 머리는 틀어올렸으나 열 예닐곱 되어 보이는 어린 아가씨다. 덕기는 병화의 하숙집 딸이라고 짐작하였다.”(삼대, p. 45)

“웃입는 것도 알팍한 옥양목 저고리 하나만 입은 것이 추워보이기는 하나 깨끗하고 감장 세 루치마 밑에 내보이는 버선도 더럽지는 않았다. 공장에 다니는 계집애들이 구두모양을 내고 인조견으로 울긋불긋하게 차린 것에 비하면 얼마나 조용하고 수수한지 몰랐다.”(삼대, p. 47)

필순이 공장을 다니고 있으나 그의 복식은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 틀어올린 머리의 여학생 차림이었다. 이는 항상 신교육을 받은 신여성을 동경하는 그의 마음가짐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삼대”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복식을 롤랑바르트의 기호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면 <표 2~4>와 같다.

<표 2> 홍경애의 복식 기호

기의 암시적 의미	기표 암시적 의미	
	기표 명시적 의미	기의 명시적 의미
근대적 가치관을 지닌 여성	짙은 등황색 외투 감승한 모자 서술있는 에나멜 뽀족구두 푸근한 털외투 삐딱이 쓴 검정모자	양장미인 화려하다

<표 3> 김의경 복식 기호

기의 암시적 의미	기표 암시적 의미	
	기표 명시적 의미	기의 명시적 의미
근대적 가치관을 지닌 여성	곤색 외투 날씬한 트레머리 구두	여학생 차림 모던걸

<표 4> 필순의 복식 기호

기의 암시적 의미	기표 암시적 의미	
	기표 명시적 의미	기의 명시적 의미
근대적 가치관을 지닌 여성	흰 저고리 검정치마 버선, 틀어올린 머리	조용하고 수수하다 여학생 차림

2. “흙”³⁴⁾

1) “흙”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특징

(1) 정 선

주인공 허송의 아내로서 서울부자 양반인 윤참판의 딸이다. 그녀는 아름답고 지식이 있고

(이화여전 음악과에 재학중)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의 규수다. 그러나 결혼은 부모의 뜻을 따르는 조선의 딸의 전통적 생각을 가졌으므로 부모가 정한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를 사랑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남편이 농촌 운동을 하려고 고향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 이성을 절제하지 못하고 늘 집에 드나들던 갑진이라는 사람과 타락의 길로 빠진다. “시골에 있는 남편을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웬일인지 애를 쓰면 쓸수록 남편이 점점 멀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도리어 갑진의 소탈한 모양이 눈에 아른거리고 그 뿐 아니라 갑진에 대하여 억제할 수 없는 유혹을 깨달았다.”(흙, p. 212)

그러나 제 잘못을 뉘우치고 남편으로 부터 이혼 얘기를 듣고는 절망감에 빠져 기차에 뛰어 들어 자살을 기도하나 다리만 상하고 목숨을 건지게 되어 남편의 고향에 내려가 시골 여인이 되어 농촌운동에 앞장 선다.

(2) 유 순

유순은 허승의 고향에 사는 시골 여성으로서 허승과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 사이이며 결혼까지도 고려한 사이다. 그녀는 허승이 결혼한 소식을 듣고도 의연하게 부모나 형제를 섬기면서 농사를 열심히 짓고 운명에 묵묵히 순종하는 전통적 여성이다. “허승의 마음이 변하여 다른 여자에게 장가든 것을 본 유순은 하늘, 땅, 해, 달, 목숨을 한꺼번에 잃어버렸다. 그가 조선의 딸의 마음을 그대로 지니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가 도회적, 이른바 신식 여자라 하면, 울고 원망하고 미쳐 날뛰고 혹은 서울로 달려 올라가 허승의 결혼식에, 또는 가정에 한바탕 야료라도 하였을 것이다.”(흙, p. 108)

(3) 심순례

심순례는 이화여전에 재학중인 신여성으로 이견영이라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건달에게 배신당하고 방황하다가 미국 유학을 다녀온 피아노 전공의 현대 여성이다.

(4) 백선희(산월이)

백선희는 장로의 딸로서 여자 전문학교를 다니다가 기생이 되었다. 그녀는 영어도 잘 하고 피아노도 잘 쳤다.

“내가 기생노릇을 하지마는 내집에 남자가 와서 자리에 누운 선생님 밖에 없으십니다.”(흙, p. 391)

그러나 그녀도 사랑에는 자유분방한 사고를 갖고 있었다.

“평생에 접한 유일한 여성인 아내로 부터 확대를 받는 승으로서의 산월의 이현신적이지요, 열정적인 사랑이 고맙고 기쁘기까지도 하였다.”(흙, p. 395)

“흙”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2) “흙”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복식

(1) 정 선

<표 5> “흙”에 등장하는 여성의 특징

등장인물	등장형태	사회적 인식
정 선	주인공 허송의 아내, 이화 전문학교 음악과 재학 중. 서울부자 양반집 딸.	긍정적으로 변함
유 순	허송의 고향에 사는 여성, 보통학교만 다님. 가난한 농부의 딸.	긍정적
심순래	부유한 장사꾼의 딸. 이화여전 음악과 재학중, 미국 유학 다녀옴.	긍정적
백선희	산월이라는 기생, 장로의 딸,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전문학교에도 이태나 다니다가 기생이 됨.	부정적 후에 긍정적으로 변함

정선이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의 복식은 “정선이 경의복을 벗어서 하늘빛 하부다이 남치마에는 조사 깨끼고리를 입었다.”(흙, p. 68)

“정선은 혼인식에 입은 드레스, 기타 철 찾아 입을 양복 일습을 맞추었다.”(p. 78)

“정선은 이 가을 밤에는 너무도 선선히 보이는, 살이 비치는 은조사 적삼에 등근 남부늬 있는 보이루 치마를 입고 구두만은 검은 칠피를 신었다. 머리는 가마있는데 약간 속을 넣어 블록하게하고 쪽이 있는 듯 없는 듯 하게 틀었다. 그리고 금테안경을 썼다. 그는 아직 아직 여학생 같았고 남의 부인 같지를 아니하였다. 전기불빛에 보는 살빛은 마치 호박으로 깎은 듯 하였다. 얇은 옷을 통하여 살까지도 뼈까지도 투명한 듯 하였다. 그의 짧은 희색 치마폭이 살빛 같은 스트킹에 찍은 길죽한 두 다리를 펠렁펠렁 회통하였다.”(흙, p. 188)

정선이 착용한 하부다이남치마에서 하부다이는 일본 명칭으로 평직의 얇은 비단을 말하며, 보이루치마에서 보이루는 얇고 비쳐보이는 비단으로서 “요사이 학생들 치마감 적삼감을 골들 때에 속 잘 드리다 보이는 것 찾느라고 빗추어 보기에 야단,”³⁵⁾ 이처럼 당시에 유행하는 최고급 옷감이며, 안경도 1920년대 후반에 안경을 착용한 여성도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기록³⁶⁾으로 보아 정선의 옷차림은 부자집 딸답게 최고급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남편 허송을 따라 시골에 내려가서 생활할 때의 모습은

“송은 선희가 농가 여자의 의복을 입고 이 지방 부인네와 같이 수건을 쪽 수그려 쓴 것을 바라보고 빙긋 웃었다.”(흙, p. 438)

“정선은 푸지를 배우고 밟은 것을 배우고 다리는 것을 배웠다. 적삼이 등에 땀이 흐르는 것 째 당연한 일이었다.”(흙, p. 526)

“살여울 부인들은 분도 안바르고 비단옷도 아니입고 제손으로 아침저녁을 짓고, 제손으로 빨래를 하는 정선에게서 자기네와 꼭 같은 여성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비로소 정선이 결코 나쁜 년, 교만한 년, 아니꼬운 년이 아니요, 도리어 마음이 아름답고 인사성이 있고 지식많은 <사람>이요, <여편네>인 것을 발견하여 사랑하고 존경하는 생각을 발하였다.”(흙, p. 526)

“정선이 화장 아니한 별에 그늘은 얼굴, 목지지미 치마에 굵은 모시 적삼을 걸친 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흙, p. 539)

이처럼 시골 농가의 여성들이 입은 소박한 무명치마 저고리를 착용하고 있었다.

(2) 유 순

“뻣뻣한 베치마에 베적삼, 그 여자는 겹정 고무신을 신었다. 그는 맨발이었다. 발등이 까맣게 별에 글었다. 그의 손도, 팔목도, 목도, 짧은 고쟁이와 더 짧은 치마 말으로 보이는 종아리도 다 별에 글었다.”(흙, p. 12)

“유순은 재작년 초 가을 허숨에 안길때 보다 커다란 처녀가 되었다. 그는 길다란 머리꼬리를 한편으로 치우려다가 치마끈에 겨 졸라매어서 늘어지지 아니하게 하고 풀이 다 죽은 광당 포치마를 가뜩하게 졸라매고 역시 풀죽은 당포적삼은 땀난 등에 착 달라붙어서 통통한 뒤태를 보인다.”(흙, p. 107)

유순의 복식은 전형적 시골 여성의 복식으로 무명이나 베로 만든 적삼, 치마, 땡기를 착용하고 있었다.

(3) 심순례

“순례는 빨리 걸었다. 그의 검은 치마는 어둠에 사라지고 지붕을 넘어서 흘러오는 전등 불빛에 그 흰저고리와 목과 어깨의 선이 걸음을 걷는대로 빠른 리듬을 이루었다.”(흙, p. 225)

“심순례는 오년전보다 약간 몸이 여위어서 호리호리 하였다. 모시적삼에 모시치마를 입고 꽤 그리 굵 높지 아니한 까만 구두를 신었다. 어느 모로 보든지 미국에 다녀온 현대 여성 같지 아니하고 A교수가 소개한 바와 같이 조선 딸다운 얇전과 겹손과 수삽이 있었다.”(흙, p. 565)

심순례는 부유한 장사꾼의 딸이지만 화려하지 않고 검소하게 얇전한 복식을 착용하였다.

(4) 백선희(산월이)

“새로운 기생은 산월이라고 불렀다. 그는 분홍 저고리에 흰치마를 입었다. 그것이 그 기생을 퍽 점잖게 보이게 하였다.”(흙, p. 291)

“선희는 오늘은 산월이 아니었다. 머리는 학생머리를 틀고 웃도 수수한 검은 세루치마에 흰 삼팔 저고리, 학교 다닐 때에 입던 외투와 핸드백을 손에 들고 모습을 감추기 위함인지 알이 검은 빛나는 인조 대모테 안경을 썼다. 산월을 본 병원 사람들도 그가 산월인 줄을 안 사람이 없었다.”(흙, p. 417)

백선희는 기생이었지만 점잖은 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그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자 할 때에는 수수한 여학생 차림으로 변장하기도 했다.

“흙”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복식을 롤랑바르트의 기호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면 <표 6~10>과 같다.

이상에서 “흙”, “삼대”에 나타난 여성들을 살펴보면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을 지닌 여성들로 나뉘어진다.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여성은 구식가정에서 자라 구식 교육을 받은 이들로 구시대 윤리에 얽매이며 인내의 미덕을 최대의 장점으로 갖고 있는 여성으로서 그들의 복식기호는 보수적 성향의 한복으로 생각된다.

근대적 가치관을 지닌 여성은 신식 교육을 받은 이들로 자유연애사상과 여성의 사회적 지

<표 6> 정선의 도시생활에서의 복식 기호

기의 암시적 의미	기표 암시적 의미	
	기표 명시적 의미	기의 명시적 의미
근대적 가치관을 지닌 여성	경의복 하늘빛 하부다이 치마 은조사 깨끼저고리 은조사 적삼 등근 남무늬의 회색보이루 통치마 스토킹, 구두	여학생 화려하다 부자집 마님

<표 7> 정선의 시골생활에서의 복식기호

기의 암시적 의미	기표 암시적 의미	
	기표 명시적 의미	기의 명시적 의미
교만하지 않은 <여편네>	목지치마 치마 굵은 모시 적삼 광당포 치마	농가 여자

<표 8> 유순의 복식기호

기의 암시적 의미	기표 암시적 의미	
	기표 명시적 의미	기의 명시적 의미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여성	뽕뽕한 베치마 베적삼 검정 고무신, 맨발 풀죽은 광당포 치마 당포 적삼 때묻고 물낱은 땡기	시골처녀 가난하다 초라하다

<표 9> 심순례의 복식기호

기의 암시적 의미	기표 암시적 의미	
	기표 명시적 의미	기의 명시적 의미
근대적 가치관을 지닌 여성	검정치마, 흰 저고리 모시적삼 모시치마 굽 높지 않은 검은 구두	젊잖은 기생 여학생 차림

<표 10> 백선희의 복식 기호

기의 암시적 의미	기표 암시적 의미	
	기표 명시적 의미	기의 명시적 의미
근대적 가치관을 지닌 여성	분홍 저고리, 흰 치마 흰 치마에 삼팔 저고리에 검은 세루치마 외투, 핸드백 검은빛 안경 학생	짧은 기생 여학생 차림

위향상을 추구하는 여성들로서 이들의 복식기호는 여학생차림 (흰저고리에 검정 통치마, 트레머리)과 양장차림, 검정 구두, 스톡킹 등이다.

특히 이 시대의 여학생 차림은 신분이 학생이든 아니든 착용한 사람은 신여성으로 간주되는 복식 기호였다.

여학생 차림의 이미지는 암전하다. 수수하다로, 양장차림은 여학생 차림보다 훨씬 화려한 모던걸을 상징했다. (양장미인)

그러나 소설 속에서 여학생 차림은 근대적 가치관을 지니되 긍정적 성향인 인물을, 양장 차림은 근대적 가치관을 지니되 부정적 성향의 인물로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양장차림은 여학생 차림의 여성보다 더 선구자적이나 많은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음을 알 수 있다.

V. 결 론

개화 이후 한국복식은 수천년동안 지속하여온 고유복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의 국면을 맞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은 서구의 새로운 문물의 도입이래 근대적 가치관과 전통적 가치관이 상충하여 전통과 근대가 섞여 있는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서구 문물의 영향으로 여성의 근대적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여성의 의식변화와 함께 여성의 사회진출 계기가 되었으며 여성의 가치관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930년대의 시대상을 반영한 신문소설, 염상섭의 “삼대”, 이광수의 “흙”을 통하여 당시의 여성의 복식을 살펴보고 기호학적 분석 방법으로 여성의 가치관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여성은 “삼대”의 덕기모, 덕기처, “흙”의 유순이 었다.

그들은 자기의운명을 묵묵히 살고 있었다.

덕기모, 덕기처에 대한 복식은 작품 속에서 묘사가 미비한 것으로 매우 평범했으며 유행을 거의 모르고 전통을 고수하는 한복을 착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유순은 농가의 처녀로서 농사짓는 일에 열심이며 전통적으로 농가의 여성들이 착용하는 배적삼, 베치마, 광당포 적삼, 광당포 치마와 같은 한복을 착용하였다.

2) 근대적 가치관을 지닌 여성은 “삼대”의 흥경애, 필순, 김의경이며 “흙”의 정선, 백선희(산월이), 심순례로 모두 신교육을 받은 여성들이다.

이들의 복식은 여학생 차림(흰 저고리, 검정 통치마, 트레머리), 양장 차림을 하였으며 검정구두, 핸드백 등도 함께 착용하였다. 작품 속에서 여학생 차림은 수수하다. 조용하다로, 양장차림은 화려하다, 세련되다로 표현되었으며 여학생 차림은 긍정적 성향의 신여성이 선호하는 것으로, 양장차림은 부정적 성향의 신여성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부정적 성향의 신여성은 사치하고 생활이 방탕하며 자유연애를 즐겼으며 술 담배를 즐겼다.

그러나 긍정적 성향의 신여성은 이성과 절제로 자신을 지켜 나갔다.

부정적 성향의 인물이 자신을 남의 눈에 띄지 않고자 할 때 화려한 복식에서 수수한 여학생 차림으로 변장하였으며, “흙”의 정선은 부정적 성향에서 긍정적 성향의 인물로 전환할 때 복식을 화려한 모습에서 검소한 전통적 농촌 여성의 복식으로 바꾸었다.

이상으로 미루어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관을 획득했을 때, 변화된 최초의 것중 하나는 복식이며³⁷⁾ 복식은 말이 나타내는 것보다 더 명백하게 감정과 영혼의 내면세계와 개개인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호임을 알 수 있다.³⁸⁾

참고문헌

1. 베르나르 투쟁 저, 윤학로 역,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청하, 1993, p. 21.
2. 한명숙, *op. cit.*, p. 13.
3. Alison Lurie 저, *op. cit.*, p. 1.
4. 소두영, 기호학, 인간사랑, 1993, p. 55.
5. 신현숙, 시에 나타난 담화 유형, 담화인지 문법 연구회, 1993, p. 353.
6.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6, p. 11.
7. 김경용, *op. cit.*, pp. 12~13.
8. 권재일, [언어 기호, 학술, 정보, 시사네트워크], 1993.
9. 소두영, *op. cit.*, pp. 20~22, p. 26.
10. 움베르트 에코 저, 서우석 역, 기호학 이론, 문학과 지성사, 1996, p. 23.
11. 정연미, 기호론에 의한 시각전달 디자인 Message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7, p. 13.
12. 움베르트 에코 저, *op. cit.*, p. 24.
13. 김경용, *op. cit.*, p. 14.
14. 김경용, *op. cit.*, p. 11.
15. 소두영, *op. cit.*, pp. 37~39.
16. 김경용, *op. cit.*, p. 20, 27.
17. 김경용, *op. cit.*, p. 14.

18. 김경용, *op. cit.*, p. 30.
19. 소두영, *op. cit.*, pp. 49~57.
20. 소두영, *op. cit.*, p. 367.
21. 하현중, 총람한국여성사 II, 이대출판부, 1972, pp. 14~19.
22. 서광선, 한국 여성과 종교, 한국 여성사 II, 이대출판부, 1972, p. 54.
23. 유희경, 한국 여성복식의 연구, 한국여성사 II, 1972, p. 70.
24. 김영모, 현대 사회 계층론, 한국 복지정책 연구소, 1990, p. 215.
25. 박경자, 일제 침략시대의 복식 연구, 1983, p. 232.
26. 조연현, 한국 현대 문화사, 성문각, 1974, p. 543.
27. 염상섭, 나와 자연주의, 한국 현대문학전집 3, 삼성, 1981, p. 469.
28. 염상섭, 사실주의와 더불어 40년대, 서울 신문, 1959년 5월 23일자.
29. 김종균, 한국 근대 작가 연구(염상섭론), 1987, p. 90~110.
30. 김종균, *op. cit.*, p. 90.
31. 이선영, 한국 근대 작가 연구(이광수론), 1987, pp. 40~62.
32. 염상섭, 삼대, 민음사(염상섭전집 4), 1987.
33. 신여성, 유행문제, 1993, 1월호, pp. 27.
34. 이광수, 흙, 양우당(애버그린 한국문학전집 1), 1986.
35. 신여성, 1926년 7월호, p. 23.
36. 동아일보, 동아만평, 1924년 6월 11일.
37. Jeanette C. Lauer, Robert H. Lauer, *Fashion Power*,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ts, N. J., 1981, pp. 242~244.
38. Jeanette C. Lauer, Robert H. Laver, *op. cit.*, p. 39.